

“여호와와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충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날마다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번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절실함으로
 강하게 추구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으로나 가정내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교회들과 동역자님들께 마음 깊
 은 감사를 전하며 멕시코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스스로 잘해 나가네요>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는 기쁨에 감사가
 있습니다. 매년 초에 교회사역으로 섬길 자들이 헌신하며,
 사역부별로 스스로 모여 한 해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스러운지요... 여전히
 부족함이 없진 않지만, 이제는 좀 더 주체적으로 모여 사
 역을 준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그러나 기도
 와 계획 가운데, 현지지도자를 세워 사역을 이양하는 일을
 준비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목자
 로, 교회 집사로 섬기며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 왔던 하
 비엘 집사가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
 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헌신된 형제를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만드는 일꾼으로, 목회자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 더욱 기도하며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중남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지난 2월, 페루에서 중남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현지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왔는데, 월요일에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현지목회자들과 볼리비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 대한 마음을 공유하며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 성경
 에서 말하는 교회에 관한 나눔은 큰 도전이기도 했고,
 새로운 헌신을 하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며 몇몇 현지목회자들은 처음



접한 강의 내용으로
 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계속된 배움의 기회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면서
 제 자신이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함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볼리비아에서..., 또한 멕시코에서도..., 아울러 모든
 중남미의 나라들에 영혼구원을 통해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
 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
 음을 흐뭇하게 하는 교회들이 가득하길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큰 기쁨>



선교지에 세워진, 아직은 작은 교회이지만 볼리비아, 페루, 스페인, 이라크에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위출 인디언 마을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쁨과 특권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8월까지 있었던 교통사고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9명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인디언마을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주

와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결혼예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인디언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의 결혼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아름다움을 인디언마을에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산이시드로 마을보다 두 배 이상 큰 마을이지만 예배당이 없어 몇시간씩 걸어서 산이시드로까지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산타바바라 마을에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으며, 영혼구원을 통해 든든한 믿음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마을 중 가장 끝에 있는 마을로, 간이 진료소가 있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는 있는데, 전갈에 물렸을 때 사용하는 응급 해독약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믿음공동체가 예배할 장소가 없는 곳이라,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마을의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와 희생적인 물질로 섬겨주시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나누며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담아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주님의 교회가 영혼구원을 통한 제자만드는 사역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하비엘 집사가 신학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세워져 가도록
3. 두 곳의 인디언마을(산타바바라, 과나과슬레)에 예배당의 필요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4.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멕시코에서 2019년, 9월에...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